

“진안홍삼 먹고 좋은 성적내길”

제29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무주군, 군수 표창·장학금 수여·민속경기 등 진행

무주군은 11일 무주읍 국민체육센터에서 '소득 가득 농업, 오래 머물고 싶은 농촌'을 주제로 제29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무주군이 주관하고 한국4-H무주군본부가 주최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농업인의 노고를 위로·격려하고 더불어 농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킨다는 취지에서 개최된 것으로, 한국농촌지도자무주군연합회(회장 유종석)와 한국생활개선투무주군연합회(회장 윤정순), 한국후계농업경영인무주군연합회(회장 박천우), 한국여성농업인무주군연합회(회장 이정선), 무주군농민회(회장 이정구), 무주군4-H연합회(회장 권주일)를 비롯한 무주군 농업인 단체 회원들을 비롯한 주민 1천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는 기수단 입장을 시작으로 식전 공연과 기념식, 민속경기(고리걸기, 투호던지기, 제기차기), 장기자랑, 부대행사(농산물 및 과채물 전시)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무주군4-H무주군본부 이종인 회장은 “농업인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농업이 생명산업이자 지역경제의 근간임을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쉬지 말아야 한다”라며 “이 자리가 무주군 농업인들의 의지를 모으는 계기로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감식 (사)한국4-H무주군본부 적상면남부회장과 송재근 (사)한국농촌지도자무주군연합회 부남면 총무, 박병순 (사)한국생활개선투무주군본부 무주읍지회장을 각각 11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한편, (사)한국4-H무주군본부 김경자 회장과 권현서, 이정훈 무주군농민회 회원, 문은옥 (사)한국여성농업인무주군연합회 회원이 우수농업인으로 선정돼 군수 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사)한국4-H무주군본부 김경자 회장과 권현서, 이정훈 무주군4-H연합회 회원이 무주군의회 의장상을,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윤자연 주무관 외 4명은 무주군농업인단체에서 주는 감사패를 받았다.

푸른꿈고등학교 3학년 조재영, 최서영 학생과 무풍고등학교 2학년 하아영 학생, 무풍중학교 2학년 허은총 학생은 학교 4H 장학금을 받았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인구감소와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해가 갈수록 농사짓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무주군은 농업이 지속 가능한 미래산업으로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농업인 육성과 스마트팜 활성화, 1읍면 1특화작목 육성, 농산물 기획생산 체계 구축에 더욱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인구감소와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해가 갈수록 농사짓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무주군은 농업이 지속 가능한 미래산업으로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농업인 육성과 스마트팜 활성화, 1읍면 1특화작목 육성, 농산물 기획생산 체계 구축에 더욱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인구감소와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해가 갈수록 농사짓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무주군은 농업이 지속 가능한 미래산업으로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농업인 육성과 스마트팜 활성화, 1읍면 1특화작목 육성, 농산물 기획생산 체계 구축에 더욱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인구감소와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해가 갈수록 농사짓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무주군은 농업이 지속 가능한 미래산업으로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농업인 육성과 스마트팜 활성화, 1읍면 1특화작목 육성, 농산물 기획생산 체계 구축에 더욱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인구감소와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해가 갈수록 농사짓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무주군은 농업이 지속 가능한 미래산업으로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농업인 육성과 스마트팜 활성화, 1읍면 1특화작목 육성, 농산물 기획생산 체계 구축에 더욱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인구감소와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해가 갈수록 농사짓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무주군은 농업이 지속 가능한 미래산업으로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농업인 육성과 스마트팜 활성화, 1읍면 1특화작목 육성, 농산물 기획생산 체계 구축에 더욱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춘성 군수, 평창서 오스트리아 스켈레톤 국가대표 선수단 격려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난 10일 평창 올림픽슬라이딩센터에서 2024-2025 국제 스켈레톤 연맹(IBSF) 아시아 챔피언십(11월 8~9일)과 월드컵(11월 16~17일)에 참가하는 오스트리아 스켈레톤 국가대표 선수단을 만나 격려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난 10일 평창올림픽슬라이딩센터에서 2024-2025 국제 스켈레톤 연맹(IBSF) 아시아 챔피언십(11월 8~9일)과 월드컵(11월 16~17일)에 참가하는 오스트리아 스켈레톤 국가대표 선수단을 만나 격려했다.

이번 월드컵은 코로나 이후 7년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경기로 총 26개국에서 약 110명의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참가한다. 오스트리아 스켈레톤 국가대표 선수들은 순위권 내에 들어가는 소위 랭커로서 성적이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직접 방문하고, 격려와 응원을 보내줘 진심으로 고맙고, 진안홍삼 먹고 꼭 순위권 성적을 거두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진안군은 국내 유일 홍삼 특구로써 전북자치도 농생명산업 선도지구로 선정돼 진안홍삼의 새로운 도약 계기 발판을 마련했으며, 명품 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군수품질인증제품, 홍삼연구소 기술이전제품, 명인/명품 제품 등 유·무형 자원을 연계한 홍삼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 군수의 이날 방문은 지난 10월 진안홍삼 해외시장 개척 및 홍삼산업 활성화를 위해 방문한 오스트리아에서 진안홍삼으로 제조한 홍삼제품의 후원식에 참가하면서 맺은 인연으로 진행됐다.

이번 만남에서 전 군수는 응원과 함께 진안홍삼으로 만든 홍삼절편, 홍삼젤리 등 가볍게 진안홍삼을 즐길 수 있는 제품도 함께 전달했다.

오스트리아 국가대표 감독 볼프강 슈타퍼는 “비내년에 이어 평창에서도

청소년 흡연예방·금연·건강생활실천 주력

무주군, UCC 공모전 시상식 가져... 8점 우수작 선정

무주군은 11일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흡연예방 및 금연, 건강생활실천 UCC 공모전’ 당선작들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대상은 무주중앙초등학교 장한별 외 4명의 학생이 출품한 “흐벼니의 담배탈출일기”가 차지했다.

무주중학교 김미진 학생의 출품작 “우리 엄마의 알코올 중독”과 무주중학교 허은 학생의 3명이 함께 한 “더 늦기 전에 벗어나야 사래!”, 무주중앙초등학교 황설빈 학생 외 4명이 출품한 “그만해! 담배 핑!”, 무주중학교 임채은 학생 외 3명의 출품작 “숫자가 보이는 소녀”가 각각 수상했다.

교육·홍보 활성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8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수상작은 흡연 예방과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 및 교육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흡연 예방과 금연, 건강생활실천을 위해 실시하는 UCC공모전은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한 미래를 위해 서로의 삶을 지키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장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흡연 예방과 건강증진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최우수상은 무주고등학교 김지윤 외 2명이 출품한 “담배가 내 친구라구?”가, 우수상은 무주초등학교 정시현 외 7명 학생이 출품한 “담배와 뉘비핀 운명”, 무주중학교 강운지 외 6명 학생의 출품작 “우울증 인식개선 및 극복 방법”이 각각 수상했다.

장수군,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 본격 추진

장수군은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4개지구 1,560필지, 53만9,965㎡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항을 바로잡고 도면에 등록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국민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국가정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내년에도 추진하는 사업지구는 장계지

구, 장계4지구, 장계5지구, 장계6지구로 실시계획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 30일 이상 주민 공람·공고를 통한 의견수렴 후 토지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사업의 목적 및 절차 설명과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전 준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

진안군, 군수 표창·농업 발전 방향·비전 등 공유

진안군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박순서)는 11일 ‘제29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진안군예체육회에서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춘성 진군수, 동창욱 군의장, 전용태 도의원, 농협 진안군지부 변성섭 지부장과 농협장을 비롯한 농업인단체 회원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순서 회장은 “농업은 식량안보와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으로, 이상기후, 쌀값 및 병해충 문제, 고품질 등 어려운 현실에도 농업에 대해 노력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인의 날은 농업인의 헌신을 기리고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날로, 1964년 농촌 계몽운동가 원흥기 선생이 제안해 1996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돼 올해로 29회째를 맞이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지역 소식 통

진안군, 고품질 미생물 공급 위한 최신 시설 신규 도입

진안군은 고품질 미생물 공급을 위해 8억원을 투입해 최첨단 멸균 배양시스템을 도입했다. 군은 소비자들의 농산물 소비 트렌드에 따라 농가들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요구에 발맞춰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 미생물 7종을 무료로 공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3,621 농가에게 314톤의 미생물이 공급됐다.

이번에 도입된 신규 배양 장비는 살균 장비를 멸균 장비로 교체해 오염균 혼입을 차단하고, 미생물 균의 밀도를 10배 정도 증대시킨 것이다. 군은 이번 장비가 미생물 품질을 향상시켜 농가에 더 큰 효능으로 다가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배양 후 미생물 분석 장비를 활용해 미생물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 고품질 미생물을 균일하게 공급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가을철 진드기 물림 주의 당부

장수군은 가을철 털진드기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대표적인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쯔쯔가무시증’의 증상과 예방수칙을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쯔쯔가무시증은 10월~11월에 집중 발생하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으로, 야외활동 후 10일 이내에 발열, 오한, 근육통의 증상과 몸에 검은 딱지가 발견되면 쯔쯔가무시증을 의심해야 한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예방백신이 없으므로 △야외활동 시 긴소매, 긴바지 착용 △풀숲에 앉을 때 돛자리 깔고 앉기 △진드기 기피제 뿌리기 △야외활동 후 목욕, 입은 옷 즉시 세탁하기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보건의료원은 ‘자연휴양림(방화동·외동) 방문하고! 진드기 기피제 뿌리고!’ 사진 인증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11월 한 달간 방화동·외동 자연휴양림 등산로 입구에 설치된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를 사용하는 사진을 찍어 큐알코드에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기피제를 제공한다. /장수=고판호 기자